

교육은 자유다

교육의향



하정호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인문학자 고병권과 한디다가 지난달에 데이비드 그레이버가 쓴 '해적 계몽주의'라는 책을 번역해 내놓았다.

볼테르, 흄, 로크, 몽테스키외와 같은 유럽 사상가들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 계몽주의가 사실은 해적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대담한 주장을 담은 책이다.

저자인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아나키스트 활동가이면서 저명한 인류학자였다.

세계 금융위기 당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운동의 '우리가 99퍼센트다'라는 슬로건도 그가 만들었다.

이런 활동 탓인지 예일대학교의 종신교수 심사를 앞두고 계약 해지당했다. 그 즈음 우리나라의 대추리 미군기지반대운동 현장을 찾아오기도 했다.

'해적 계몽주의'는 그가 59세로 생을 마감한 3년 뒤인 2023년에 출간된 그의 마지막 저서이다.

1989년과 1991년 사이 박사논문을 쓰면서 그레이버는 마다가스카르에서 현장연구를 했다.

그때 어느 여성과 연애를 하면서 캐리비안의 해적들이 18세기에 마다가스카르에 정착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해적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처음 들었다.

그 후 많은 문헌 자료를 통해 그레이버가 알아낸 마다가스카르 해적의 역사는 이렇다.

18세기 해적의 황금시대에 카리브해와 인도양 사이를 누비던 일군의 해적들이 아프리카와 인도 사이에 있는 섬인 마다가스카르에 정착했다.

당시 유럽인들은 헨리 에이버리라는

선장이 만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마다가스카르에 왕국을 세웠다고 믿었다. '로빈슨 크루소'의 작가로 유명한 다니엘 디포가 그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다. 1723년에 존슨 선장(다니엘 디포의 필명으로 보기도 한다)이 쓴 '해적들의 일반 역사'에는 그곳이 왕국이 아니라 '리베르탈리아'라는 자유로운 공화국이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그런 나라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도 이런 것은 사실로 보인다.

선상반란을 일으켜 선장을 죽인 해적들은 서로가 동등한 관계에 있기를 원했다.

투표로 선장을 뽑았고, 때로는 여자들이 해적선의 선장이 되기도 했다. 그렇게 선장으로 뽑힌다고 해서 다른 해적보다 더 많은 권리를 누리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전투를 할 때 지휘권을 가질 뿐이었다.

선장에 대항할 수 있는 선원들의 평의회도 있었고, 노획물은 성문화된 규약에 의해 분배되었다. 선장이라 해도 언제든지 고기밥이 될 수 있는 처지라는 점에서는 평등했다. 해적들만이 아니었다. 해적들이 정착했던 마다가스카르 원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도 해적들과 같이 살면서 피의 형제 맹세를 하고 배를 타고 함께 바다로 나갔다.

그레이버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일어난 급진적 정치실험을 '원형적-계몽주의'라고 불렀다. 이런 해적들이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적 통치(governance)의 발전을 선도했다고 본다.

유럽에서 일어난 계몽주의는 이것보다 훨씬 못한 아류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레이버의 주장이다. 해적 공화국의 이야기가 유럽의 살롱들에서 부풀려지면서 유럽인들도 해적의 삶을 동경하게 되었고, 평등한 새 세상의 꿈을 키워갈 수 있었다.

그리고 결국 이런 해적들의 평등사상에서 시작한 계몽주의가 유럽의 봉건질

서를 무너뜨렸다. 하지만 그 뒤로 이어진 계몽주의의 역사는 짐울하다. 세상에 밝은 빛을 주려고 병원과 학교, 공장을 짓고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자기 나라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식민지 사람들도 착취하고 노예로 삼았다. 지금 이곳에서는 노동과 같은 공부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에 이르는 학생들도 있다.

요즘 '협치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 표적집단면접(FGI)을 하며 마을 교육공동체 활동가들을 만나다 들은 이야기이다.

시의회에서 미디어 교육 관련 토론회가 있었다.

한참 동안 미디어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했는데 한 고등학생이 이렇게 되물었다.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교육을 하고 체계를 잡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른들은 어떤 걸 배우나요?"

계몽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일이 아니라 자신과 이웃의 자유를 되찾게 하는 일이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자유(Freiheit)와 친구(Freund)는 어원이 같다. 인도유럽어족에서 'pri'는 사랑, 함께하는 기쁨을 뜻한다. 그레이버는 그런 점에서 자유가 서로에게 예측되지 않으면서 친구가 될 수 있는 관계에 기초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궁극적인 자유는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는 무엇이 될 수 있는지" 다시 질문하고 "우리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집단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결정하는 자유"라고 말했다. 그 자유, 그것이 교육 아니겠는가. 우리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식을 가르치려 하기보다, 무엇이 될 수 있는지 다시 질문하고 우리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교사와 학생은 그런 관계에서 친구가 되어 함께하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 가르치기보다 함께 배워야 한다. 교육의 문제는 자유의 문제이다. 협치도 이렇게 서로가 자유로운 관계일 때 가능하다.

서석대



"수도 장안에서 벼슬한 지 20년, 가난한 삶이나마 즐길 만한 겨자가 없네.

집 가진 달팽이가 외려 늘 부러웠고, 제 몸 건사할 줄 아는 쥐가 차라리 더 나올 판.

오직 바라는 건 송곳 꽃을 만큼의 작은 땅, 목각 인형처럼 떠도는 신세만 면했으면.

-백거이(白居易 772-846), '집 장만(卜居)' 중

1000년 전 당나라의 시인 백거이도 수도에서 벼슬살이를 20년이나 했으면서 정작 머물 수 있는 집이 없이 달팽이와 들쥐를 부러워했다. 1000년 전이나 1000년 후나 등에 집을 짊어지고 다니는 달팽이를 부러워하는 무주택자들의 한숨은 이어지고 있다.

매달 월급으로는 집 한 채는 커녕 방 한 칸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다. 광주지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한평)당 지난 2015년 821만원에서 지난해 1991만원으로 10년새 140% 상승했다. 그나마도 수도권에 비하면 양반이다. 서울의 84㎡ 신축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7억원을 넘긴 지 오래고, 평당 가격은 4500만원에 육박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대 평균 월소득은 263만원, 30대는 386만원에 불과하다. 세금, 식비, 월세도 내지 않고 1년을 꼬박 모아도 20대는 서울의 아파트 한 평조차 손에 넣을 수 없고, 30대는 겨우 가능하다.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직장 과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다는 소망은 사치가 된지 오래

다. 조금 더 썩 집값을 찾아 도심 외곽으로 내몰리는 청년들은 이미 백거이가 피하고 싶었던 '목각인형처럼 떠도는 신세'다. 집값 때문에 서울을 떠나 경기도나 인천 등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서울난민'이라는 용어가 생겼을 정도다.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송곳 하나 꽃을 만큼의 땅이라도 좋다'는 백거이의 바람과 다르지 않다. 그저 맘 놓고 몸을 누일 집 하나는 있었으면 하는 것이지만, 이미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주거는 생존의 수단이 아닌 투자 수단으로 변질됐다.

월급으로 집을 살 수 없는 구조는 더 이상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과거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이 경제를 왜곡시켰다"고 지적하는 등 과도한 집값 상승에 비판적인 입장을 강조해 왔다. 그 말이 공허한 선언으로 남지 않으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빈틈 없는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일수록 부작용이 크다. 규제를 강화하면 풍선효과가, 수요를 억누르면 튀어 오르는 반작용이 반복된다. 당장의 규제로 실수요자들마저 막차를 타려 달려들고 있는 현실을 살펴야 한다. 출발선을 험차게 나선 현 정부의 발걸음 끝에 드디어 한국이 '부동산 신화'에서 벗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한다.

곽지혜 취재2부 기자

社說

전남 에너지 수도 기회될 'RE100 특별법'

정부의 제도·지원 뒷받침 대야

정부가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밀집된 서남권과 울산이 유력하다"고 밝혔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산단을 규제 제로 구역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의지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천을 담보한 발언이다.

RE100 산업단지는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하는 기업들이 입주하는 구조다. 이러한 산업이 현실화되면, 대규모 전력 소비가 필요한 데이터센터나 AI 컴퓨팅 인프라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전기료 직접 구매 구축 등 파격적 혜택이 예고된 만큼, 재생에너지 기반의 기업 활동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남도는 이미 지난 1일 대통령실에 '전남 서남권 50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 구상을 제안했다.

해남 솔라시도에 AI 슈퍼클러스터

허브를 구축하고, 무안·영암·해남·목포를 중심으로 에너지신도시와 해상 풍력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번 정부 발표는 이러한 전남도의 전략과 맞물리며, 향후 구상 실현에 큰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를 분산하고, 서남권 지역의 고질적인 인구 감소와 산업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가 특별법에 전남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야 하는 이유다.

전남은 이미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 입지적 강점, 유휴부지, 유관 산업 기반 등을 갖추고 있다. 정부의 RE100 정책과 전남의 미래 전략이 맞물린 지금이야말로, 장기적인 국가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해 지방의 역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절호의 기회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속도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전남이 단순 후보지를 넘어 '국가 미래 에너지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의대생 복귀, 의료정상화 위한 시작이다

신뢰 바탕으로 개혁 원칙 지켜야

1년 반 가까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전격적으로 복귀를 선언했다. 장기간 이어진 의정 갈등에 출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이번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필수의료체계 등 의료 환경의 실질적 변화와 개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장기화된 의·정 갈등은 의료공백은 물론이고 의사 양성 시스템마저 무너뜨렸다. 당장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했다고 해서 즉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육의 질을 담보할 학사 운영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 먼저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의대생이 복귀한 후 2024학년부터 2026학년까지 3개 학년이 1학년 수업을 동시에 듣는 상황이 온다면 의료교육은 붕괴될 가능성도 높다. 2학기 복귀도 간단하지 않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의대는 학사가 1년 단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 1학기 유급 조치를 받으면 2학기 복학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40개의대 유급 대상자는 8305명, 제적 대상은 46명이다.

전공의 복귀 여부도 관심이다. 전공 의들은 이달 초 8458명의 설문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입대 전공의 등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의 복귀 '선결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사직 전공 의들의 경우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병원에 복귀할 수 있지만 이들은 차질 없는 복귀를 위해 입영 대기 상태인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이러한 특례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전공의들의 요구안이 구체화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의료 사태 해결은 새정부에 주어진 첫 시험대다. 무엇보다 정부는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개혁의 원칙을 지키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시킬 현실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지역 의료 공백을 막을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의료 인재 양성의 모델도 만들어야 한다. 의대생의 복귀는 의료대란을 끝내기 위한 시작일 뿐이다.

| 全南日報 | 사장·발행·편집인 | 이재욱 | 논설실장 | 이용환 | 편집국장 | 박성원 |
|--------------------------------|-------------------------------|--------------------|-----------------------------|---------------|------|-----|
|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 대표전화 | (062)527-0015 | 경영지원팀 | (062)510-0421 | | |
| | 기사제보 | (062)510-0331 | 광고영업팀 | (062)519-0710 | | |
| | 편집부 | (062)510-0412 | 문화체육부 | (062)510-0351 | | |
| | 취재1부 | (062)510-0380 | 온라인뉴스부 | (062)510-0461 | | |
| www.jnilbo.com m.jnilbo.com | 취재2부 | (062)510-0394 | 사진부 | (062)510-0391 | | |
| | 정치부 | (062)510-0340 | | | | |
|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 |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 | | |
| 구독신청 (062)510-0471 | | 광고문의 (062)512-0100 | | | | |
| FAX (062)510-0436 | | 서울지사 (02)725-8890 |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 | | | | |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